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기

| 바바라 해거티 | 홍지수 옮김 |

명상은 스스로 의도하며 절차를 통제하다가 신과 우주와 일체가 되거나 무아로 가므로 전두엽이 활동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방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정이 진행되므로 전두엽의 활동이 정지합니다. 그러면서도 신과 자신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두정엽의 활동은 살아있습니다! 전자는 분리에서 합일이나 무아로, 후자는 분리 속에 있으면서도 개체로서의 자신은 물의지沒意志 속에 있다는 비아非我的 유사성이 있습니다(편집자 주).



앤디 뉴버그는 기회의 균등을 옹호하는 과학자다. 그래서 그는 명상 상태의 뇌와 흥분 상태의 뇌, 두 가지 모두에 깊은 흥미를 느끼고 오순절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성도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뉴버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들의 뇌는 명상 수행하는 수녀나 승려들의 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궁금한 점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다.

한 형태의 영성을 다른 형태의 영성과 구분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다. 승려와 수녀들의 뇌 스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영성을 구분하는 것은 스타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스타일과 만나게 된다.

1905년 LA의 아주사 거리 선교단에서 낮선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이후로, 오순절 교파는 전 세계를 광풍처럼 휩쓸며 미 대륙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중남미까지 뻗어나갔다. 최근에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파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혼을 쏙 빼놓는다.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고 치유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자신만의 '기도 언어'로 기도하게 만든다. 오순절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방언이다.

뉴버그는 그의 말대로 하자면 이 '끔찍한' 연구를 하기 위해 수년 동안 방언을 해온 5명의 여성을 모집했다. 연구 절차는 스캇 맥더모트, 수녀와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동일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뉴버그는 방언을 할 때 발생하는 변화만을 따로 포착하고 싶었기 때문에, 각 실험 대상자에게 복음성가를 부르게 하여 이때 나타나는 변화를 '기준' 상태로 삼았다. 방언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목표' 영적 상태로 삼았다.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추적물질을 실

험 대상자의 혈류에 주입해 음악을 통해서(노래할 때), 영적으로(방언할 때) 흥분의 절정에 달했을 때 뇌 상태를 포착했다.

도나 모건은 이 병원의 방사선과 기술자 중 한 명인데, 방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을 돕겠다고 자원했다. 첫 실험 대상자의 실험 준비를 하면서 뉴버그는 모건에게, 자기는 방언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찌지?” 그가 모건에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일어날 겁니다.” 그녀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한 지 2분이 지나자 실험 대상자는 외국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다시 영어로 말하더니 다시 방언을 내뱉었다. 그때 뉴버그는 도나 모건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방언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모건도 자신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놀랍군.” 뉴버그는 또 다른 조수에게 속삭였고 두 사람은 15분 동안 두 여성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모습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모건은 결국 실험 대상자가 되었고, 방언할 때의 뇌 활동을 다룬 학회지 논문의 공동저자가 되었다.

뇌 스캔을 보면 왜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는 방언이 들리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인지처리과정을 보면 방언은 다소 저급한 축에 속한다. 뉴버그는 뇌 스캔 사진을 현상해서 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고차원적 사고 과정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위를 보고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전두엽이 사실상 활동을 증지했어요.” 뉴버그가 내게 말했다. “돌이켜보니 웬지 이해가 되네요. 명상을 할 때는 본인이 그 절차를 통제하죠. 뭔가에 정신을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정이 진행되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관장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아, 좋은 질문입니다.” 뉴버그가 중립적으로 대답했다. “그 질문에 영적인 대답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겠죠.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 속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부위, 즉 전의식(preconscious, 현재의 의식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의식으로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는 장소) 부위가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만들도록 돕는 대뇌피질 부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히는 알 수 없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을 때 그는 생리학적인 현실을 묘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뉴버그는 오순절교회 성도의 뇌 스캔에서 또 하나 뜻밖의 활동을 포착했다. 수녀와 승려 들의 뇌와는 대조적으로 오순절교회 성도의 뇌에서는 두정엽(연상 작용을 관장하는 부위) 활동이 실제로 증가했다. 수녀와 승려 들은 자신과 세상을 구분 짓는 경계를 허물고 신이나 우주와 일체가 됐지만, 오순절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신과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경험은 관계이지 합일이 아니었다. 다른 ‘신경신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하면, 방언은 기독교의 향심기도와는 생리학적으로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 이들의 믿음에는 예수를 신의 아들로 본다는 공통

점이 있지만, 그들의 영적 수행 방식은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서나 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나 공통점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어느 방법이 옳고 어느 방법이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초월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길은 수없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끝) 

- 이 글은 『신의 흔적을 찾아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바바라 해거티**Barbara Hagerty |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등 전 방위를 넘나들며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금기의 주제에 접근하여 진실을 밝혀온 25년 경력의 탐사 전문 작가. 차별화된 이슈를 고르는 예리한 감각, 핵심을 찌르는 명료한 필력,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한 취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국 방송 최고 권위의 조지 포스터 피바디 상, 해외언론인협회상, 헤드라이너 상 등을 받았다. ‘월드 모니터’ 일본 주재 아시아 특파원, ‘모니터 라디오’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세계적 언론사인 미국공영라디오방송 NPR의 대표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윌리엄스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템플턴 재단 저널리즘학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워싱턴 D.C.에 살고 있다. 『신을 찾아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자 논픽션 작가인 저자가 과학과 종교의 오랜 논쟁이 되어온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추적, 탐사, 검증한 책이다. 물질과학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영성의 과학’이라는 금단의 연구 주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영적체험의 신경생리학적 연구라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획기적인 발견에 전 세계를 주목시킨 화제작이 되었다. 출간과 동시에 언론계는 물론 과학계와 종교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역자 | **홍지수**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에서 뉴스 앵커로 일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학대학원과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각각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정보통신부 차장, 리 인터내셔널 무역투자연구원 이사로 일했으며,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월든/시민불복종』,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자유』, 『전략 퍼즐』, 『연애와 결혼의 과학』 등이 있다.

신의 흔적을 찾아서

신의 존재를 찾아 나선 위대한 탐사



저자 **바바라 헤거티** | 역자 **홍지수** | 출판사 **김영사** | 정가 **14,000원**

『신의 흔적을 찾아서』는 과학의 이면을 꿰뚫은 독보적 연구, 신앙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신과 인간, 과학과 종교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뇌과학·신경신학·심신의학·유전학·철학·심리학 등 세계 석학들의 연구와 실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생생한 증언과 경험담, 집요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 세계 너머에 대한 진실을 새롭게 밝혀냈다.